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18)

아쇼까왕과 데비 사랑이 깃든 산찌대탑

일행은 보팔박물관 관람을 위해 보팔(Bhopal)역으로 바로 갔으나 박물관은 필요없다 휴관이란다. 할 수 없이 보팔 시내 관광으로 대체한다. 산찌대탑을 답사하기에는 시간이 여정정하기에 그렇다. 산찌대탑을 답사하려면 최소한 하루는 잡아야 하는데 한 나절밖에 시간이 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백화점 구 내서점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일행과 잠시 헤어진다. 아쇼까 대왕과 관련된 서적을 사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쇼까 대왕을 연구한 서적은 서너 권에 불과하여 실망스럽다.

비디샤(Vidisha)역에 내려서라면 지금쯤 산찌대탑을 답사하고 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답사일행에게 시간이란 금싸라기처럼 소중한데, 인도중부 마디아프라데시의 주도(州都) 보팔로 바로 왔던 게 실수였던 것 같다. 비디샤는 인도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아쇼까왕시대 이전부터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한다. 비디샤 사람들이 상술에 능했던 데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수학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다소 과장이 아닌지 모르겠다.

아쇼까왕 첫째부인 데비는 석가족 후에

비디샤는 아쇼까왕의 첫째부인 데비(Devi)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데비는 무역을 하여 부를 축재한 부호의 딸이었다고 하고, 데비가 살았던 마을은 산찌대탑 부근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불심이 깊은 데비 부친이 집에서 가까운 산찌 언덕에 절을 하나 지어 스님에게 기부한 뒤 가족이 기도하는 원찰로 삼았기 때문이다. 데비 부친과 데비가



사리불과 목련의 사리가 안치된 스투파. 생사를 초월하여 부처님을 사모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불제자가 아닐까 싶다.

바라문교를 믿지 않고 불교신자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대로 불법을 지켜온 석가족이라는 설이다. 물론 데비의 선조들이 어떤 경로로 비디샤까지 이동했는지는 미스터리이다. 역사적인 기록도 깬데라성이 함락되자 일부는 네팔로, 또 일부는 상갓사로 무리지어 이주했다는 주장이 정설인 것이다.

처녀시절부터 데비는 주로 산찌언덕에 있는 가족의 원찰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던 것 같다. 아쇼까왕이 태자 때 옷자신(Ujjain) 총독이 되어 비디샤 지방을 다스리는 동안 데비를 만났던 장소도 산찌언덕이 아니었을까 싶다. 산찌언덕은 비디샤 평야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요새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아쇼까 태자는 석가족의 후예답게 기품 있는 데비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불심이 깊은 데비의 신앙심에 감화되어 불교에 매력을 느낀다. 때문에 훗날 아쇼까가 왕이 되어 불법에 귀의하는 동기를 데비의 불심에서 찾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이다.

스리랑카 역사서인 <디빠밤사(Dipavamsa; 島王統史)>에 의하면 아쇼까 태자는 데비를 만나 아들과 딸을 낳은 뒤 마우리아왕조의 수도 빠팔리뿌트라로 돌아가 4년간의 왕권쟁탈전 끝에 99명의 왕자, 즉 이복동생들을 죽이고 왕이 된다. 이후 데비의 아들 마힌드라와 딸 상가밧다는 빠팔리뿌트라로 올라가 부왕인 아쇼까왕을 만나 어머니의 소식을 전한다. 역시 <디빠밤사>에 의하면 두 남매는 '자식을 출가시킨 왕이야말로 불법의 상속자다'라는 마우리아왕국의 왕사 목갈리뿌따밧사의 법문을 들은 아쇼까왕의 권유를 받아 출가하는데 그때 마힌드라는 20세, 상가밧다는 18세였다고 한다.

그들은 10여 년을 수행한 끝에 장로가 되어 마힌드라는 산찌언덕의 절로 내려가 어머니 데비와 행복 한 시간을 보낸 뒤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하는 전법사로 파견된다. 뒤이어 상가밧다도 스리랑카 왕의 요청으로 비구니 전법사가 되어 보드가야의 보리수 가지를 들고 빠팔리뿌트라에서 배편으로 강가강을 타고 뱅골만으로 나갔다가 해로로 스리랑카로 가 그곳의 비구니승단의 지도자가 된다.

부처님 상징하는 보리수가 귀결이하고 있네

다음날 아침 일찍 일행은 산찌대탑이 언덕으로 가 첫 단계입장객이 된다. 정문 오른쪽에 절이 하나 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영감이 하나 전광석화처럼 머릿속을 스친다. 아, 바로 저 절 자리에 데비의 가족 원찰이 있었던 게 아닐까? 아쇼까 태자가 시찰을 나왔다가 처녀 데비를 만났던 장소가 아닐까? 어머니 데비와 수행자가 된 마힌드라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자리가 아닐까? 나는 절로 먼저 가 참배를 한다. 스리랑카 스님들이 세운 절이라고 한다.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한 마힌드라 장로를 기념하기 위해 절을 건립했을 것 같다. 법당 안에 그려진 벽화도 마힌드라 장로가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당을 지키는 스님에게 이곳이 데비 가족의 원찰이었나고 묻자 금지초문이라는 듯 고개를 가웃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산찌대탑의 북문 조각상. 두 개의 사각기둥에 세 개의 대들보가 걸려진 문(도라나)으로서 부처님의 전생담(자따까), 사문유관 등 일화들이 양각돼 있다.

삼층으로 이뤄진 산찌대탑 바디샤 불교의 중심 역할 승가화합 칙령 담은 석주 아쇼까왕 신실한 불심 느껴

거린다.

이윽고 나는 일행과 함께 산찌대탑을 둘러본다. 대탑(마하스투파)을 최초로 건립한 사람은 아쇼까왕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대탑을 조성하고 석주를 세웠던 것이다. 왜 산찌언덕에 스투파와 석주를 세웠는지는 다른 곳과 차이가 난다. 아쇼까왕은 대부분 부처님이 설법한 장소 혹은 인연이 있는 곳에 스투파나 석주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산찌는 다르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첫째부인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아쇼까왕이 산찌에 왔을 때는 이미 데비는 죽고 없었으니 신앙심이 깊은 그녀를 위하고자 스투파에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고 자신의 담마칙령을 새긴 석주를 세우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보면 산찌대탑은 뜻다 한 사람을 위해 바치는 아쇼까왕의 마음이라는 느낌이 든다.

일행은 북문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돌로 된 두 개의 사각기둥에 세 개의 대들보가 걸려진 문(도라나)으로서 부처님의 전생담(자따까), 사문유관 등 일화들이 양각돼 있는데 북문의 조각이 가장 빼어난 것 같다. 특히 불상이 없었던 시대에는 보리수가 부처님을 상징했는데 이곳 북문도 마찬가지로. 보리수 주변에 합장한 사람들이 많은 조각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광경이고, 보리수를 향해서 원숭이들이 그릇에 꿀을 담아 공양하고 있는 광경도 역시 보리수



북문 기둥 조각에는 원숭이에게 꿀을 공양받고 있는 귀결이한 보리수도 조각돼 있다. 불상이 없던 시절, 보리수는 부처님을 상징했다.

가 부처님인 것이다. 재미있는 조각이 또 눈에 띈다. 부처님이 마야부인에게 설법하고 내려온 상갓사의 삼계보다 꼭대기에도 보리수가 부처님을 상징하여 조각돼 있다.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어떤 보리수는 좌우로 귀결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부처님을 장엄하기 위해 귀결이를 보리수에 걸었을 텐데 이는 산찌대탑의 설명문에도 없는 나의 발견(?)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일행에게 '보리수가 귀결이를 하고 있다!' 하고 탄성을 내질렀던 것이다. 천녀 야사까(Yakshika)의 관능적인 조각도 눈길을 사로잡는데 사내들의 조각도 대부분 상류사회 인도인들처럼 배가 볼록한 것이 특징이다.

죽어서도 부처님을 사모한 사리불과 목련

대탑은 삼층탑 형식인데 옥계, 색계, 무색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을 상징하건 간에 비디샤 지방에 산재한 불교사원들의 중심축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듯싶다. 지금은 그 많은 사원들이 자취를 감추고 산찌대탑만 홀로 남아 당시의 영화를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돼 왔기 때문이다.

아쇼까왕 석주는 남문 쪽에 동강 난 채로 누워 있다. 석주 상단에 없었던 사자상은 현재 산찌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설명이다. 석주에 새겨진 담마칙령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마모된 부분)... 승가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아들과 증손자들이 통치하는 한, 저 해와 저 달이 빛나는 한, 그렇게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 나는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가 화합을 이루도록 하였다. 승가를 분열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비구든 비구니든 원망을 입혀서 승원이 아닌 곳에 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승가가 일치하여

오래 오래 변형하도록 하려는 나의 염원이다.'

석주 뒤편에는 그리스풍의 동그런 기둥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듯 한다. 안내문을 보니 그리스풍의 신전(神殿) 유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쇼까왕의 할아버지 잔드라굽따가 격퇴한 알렉산더대왕 군대가 이곳까지 정복한바 그들이 남긴 헬레니즘 문화라고 생각된다. 산찌의 전성기 때는 8기의 스투파와 45개의 사원이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3기의 스투파와 동굴 형식의 법당, 그리고 불상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답사일행은 대탑의 문들을 감상하다가 탑 중간쯤으로 올라가 탑돌이를 한 뒤 내려와 대탑 부근의 사원 터를 둘러보고 서문 밖 잔디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어느새 인도인들이 삼삼오오 입장하여 탑돌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대탑은 탑돌이를 세 군데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문 밖과 안, 그리고 탑 중간이다. 문밖은 중생들이 머무는 옥계이고, 문안은 색계이며, 탑의 중간은 무색계라는 것일까. 탑돌이 한 번으로도 무색계까지 갈 수 있구나 무입승차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대탑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지나왔던 스투파가 사리불과 목련의 사리를 안치했던 스투파라고 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가깝게 있는 사리불과 목련의 절절한 보리심을 표현한 스투파 같다. 생사를 초월하여 부처님을 사모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불제자가 아닐까 싶다. 사리불과 목련이 그림다. 부처님이 부럽다. <끝>



글=정찬주 · 사진=이일선

藝園® <http://www.예원물.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장판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 (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쥘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문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문의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원조

설치가 편리한 고려형 유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불룩 전선 10년 **불해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8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8)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명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인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

▶ 평생, 탑돌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